

산악인들에게 도움 주는 '정보 베이스 캠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산악문화회관 내 산악도서관

산악도서관에 가면 산이 보인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산악문화회관 3층에 자리잡은 산악도서관(관장 최선웅)에는 인간이 산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그곳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더딘 과정이 보존돼 있기 때문이다.

등반계획서·보고서가 유용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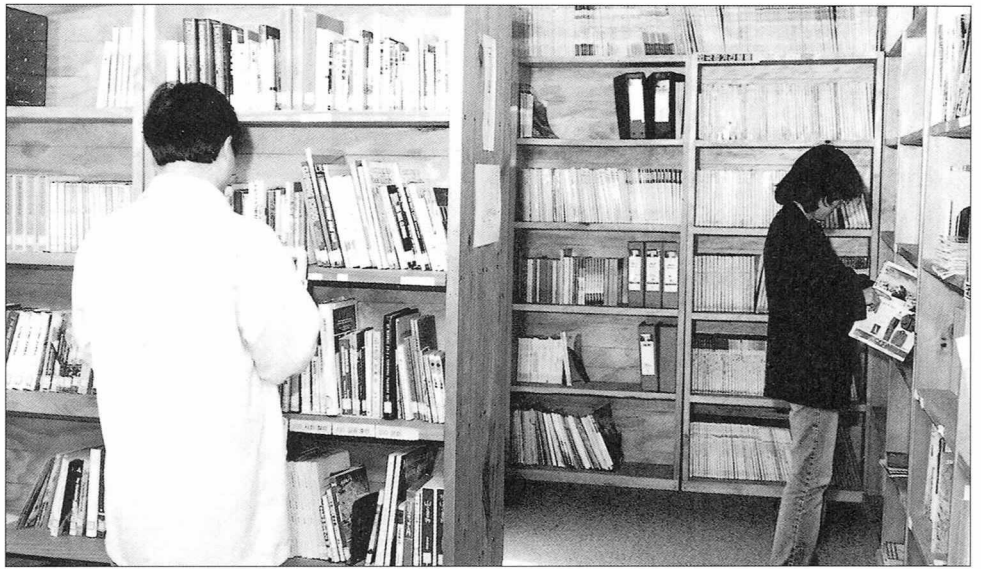
지난해 6월, 국내에 몇 안되는 전문도서관으로 문을 연 산악도서관은 산악인 개개인의 노고로 만들어졌다. 40평의 공간을 채운 3천2백여권의 자료가 모두 그들의 손때 묻은 소장본이고, 새로 찾아드는 자료 역시 산악인들의 서가에서 뽑혀온다. 국내외 단행본 9백여권, 잡지류 1천7백여권, 화보·회귀본·등반계획서·보고서류 300여권 등의 다양한 자료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등반계획서다.

“에베레스트를 처음 등반한 7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있어온 굵직한 등반계획서를 거의 모아 두었습니다.”

도서관을 찾는 이들이 대개 전문 등반가들이기 때문에 등반계획서는 보고서와 함께 가장 유용한 자료로 쓰인다고 사서 한혜선 씨는 설명한다. 외국에 있는 산의 경우 혼자서는 정보를 얻기 힘들어 산악도서관이 정 보고환의 장으로 독특한 역할을 한다. 등반기를 잘 남기지 않는 우리 등반풍토는 도서관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만든다.

“단순한 팸플렛 하나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를 재평가받게 됩니다. 그 일은

지난해 문을 연 산악도서관은 산악인 개개인의 노고로 만들어졌다. 40평 공간을 채운 3천2백여권의 자료는 모두 손때 묻은 소장본들이다. 국내외 단행본과 화보·회귀본 등반계획서 등은 전문 등반가들에게 유용한 자료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산악문화회관 3층에 자리한 산악도서관

비영리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1930년대 자료인 《경성제대 백두산보고서》, 최남선의 《금강예찬》, 백두산 등정기록을 담은 《문교의 조선》 등의 회귀본은, 찾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산악도서관이 아니고서는 구비하기 힘든 자료다. 해외 고산등반이나 암벽등반, 산악스키 등 기술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위해 비디오 테이프도 구비했지만 찾아오는 이가 많지 않다.

“어떤 날은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름휴가 같은 시즌에나 10명 정도 이용하고, 평균 잡아 3~4명의 이용객이 고작입니다.”

전문도서관의 특성상 일반인들이 빈번하게 이용하기는 힘들고, 전문가들의 경우는

특별한 등반계획이 잡혀야 정보를 얻기 위해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악도서관이 선결해야 할 과제는 이용객을 늘리는 문제보다 재정자립이다. 산악인들의 헌신적인 도움만을 기대한다면 더 좋은 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워지고, 책상이나 도서검색을 위한 컴퓨터 등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 부족해지기 십상이라는 것. 더 좋은 읽을거리와 더 많은 시설만이 이용자를 늘리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얘기다.

정기간행물의 기사색인 작업중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국내 정기간행물의 기사색인 작업입니다. 하루빨리 회원제를 도입, 운영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정기간행물로 월간 《산》, 《사람과 산》,

《악인(岳人)》, 《엑셀시오》 등의 기사색인 일은 개관 이후부터 시작해 올해 안에는 끝낼 생각이다. 그 일이 끝나면 책으로 엮어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게 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질 높은 해외 산악자료를 번역해 소개하는 일, PC 통신이나 CD롬을 통한 유료 정보서비스도 앞으로 해야 할 일로 꼽아놓았다.

“등반기·수필에는 보통 사람들이 하기 힘든 체험이 담겨 있고, 극한에 도전한 사람들이 삶에 대해 얻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프랭크 스마이드는 산에서 느꼈던 감상을 “자연에 대한 환상을 뛰어넘어 천국에 다다른 하나의 모험”이라고 표현했다. 실용적인 등반기술이나 정보 외에도 ‘산’ 책을 읽는 매력은 이러한 감동에 있다. — 이현주 기자

철학만화① 너 자신을 알라

조준상 글·그림/192면/6,000원

어렵고 부담스럽게만 느끼고 있는 철학을 청소년과 일반 독자들이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우리 필자의 글과 그림의 만화로 엮어 기획한 서광사의 철학만화 시리즈 첫권으로 그리스·로마 철학자의 삶과 사상을 다루고 있다.

존 스튜어트 밀:생애와 사상

W. 토머스 지음/허남결 옮김/192면/6,500원

《자유론》의 저자로 우리에게 익숙한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의 생애와 학문을 날카로운 필치로 요약·소개하고 있는 밀 입문서로 수많은 문헌들의 주제가 되고 있는 밀을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썩어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현대의 철학적 인간학

K. 로렌츠 지음/강학순 옮김/224면/7,500원

‘철학적 인간학’에 대한 최신 정보와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기 위한 필독서라 할 수 있는 이 책은 20세기에 출발한 철학의 한 분과인 철학적 인간학에 관한 모든 입장을 저자 자신의 고유한 관점과 ‘방법론’을 통해 정리한 인간학 분야의 최신 연구서이다.

중국 도가(道家)의 음악사상

한홍섭 지음/304면/10,000원

서광사의 철학박사학위논문시리즈 제13권인 이 책은 무위적인 자연음(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이야말로 음악음의 근원이라 생각하는 도가의 음악사상을 유가의 음악사상과의 대비를 통해 그 의의와 특징을 부각시켰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영입부 924-6161 편집부 924-6165 팩시밀리 922-4993